



IV 적금도



여수시
변천사



IV. 적금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 지리적 배경

1) 주요 선착장간 거리

적금도선착장에서 백야도 백야항까지는 직선거리로 12km이며, 화양면 별가선착장까지는 직선거리로 4.7km이다.



적금도선착장



별가선착장



적금도방파제



적금마을 전경 (2008)



적금마을 전경



적금도 항공사진

2) 인구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70세대 112명이 살고 있는데 이중 남자 49명, 여자 63명이다.

인구 현황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70	112	49	63

3) 토지현황

적금도의 총면적은 0.808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9km이다. 전답은 0.574km², 임야 0.11km², 대지 0.048km², 기타 0.076km²이다.

토지 현황 (km²)

면적	전답	임야	대지	기타	해안선
0.808	0.574	0.11	0.048	0.076	9km

4) 공공기관

적금도는 1896년 돌산군 설립 당시 옥정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까지 면소재지였다. 치안센터가 1개소 있다. 팔영대교 건설 이후 대교 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고흥사무소가 들어서 있다.



리사무소



치안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관리센터 고흥사무소

5) 교육기관

적금초등학교는 1946년 7월 낭도국민학교 적금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1947년 4월 23일 낭도국민학교 적금분교장으로 인가받았고, 1950년 3월 25일 적금국민학교 6년제 인가를 받았다. 인구감소로 1986년 3월 1일 여산국민학교 적금분교장으로 격하되었고, 1998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적금분교(2009) / 적금분교

6) 사회조직

(1) 사회조직

적금도의 사회조직으로는 적금개발위원회, 적금노인회, 적금부녀회 등이 있다. 인구감소와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단체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2) 어촌계

적금도 어촌계의 정식명칭은 적금어촌계로 1962년에 최초 설립되었다. 어촌계 설립 후 90년대 후반에 최대 70여 명까지 계원수가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5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 어촌계 공동어장에서는 바지락과 미역, 툇 등의 해조류가 주로 생산되며,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공동어장의 관리가 힘들어지자 일부 어촌계원에게 어장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어촌계원 각각의 어업은 낚시, 주낙, 통발, 단지를 이용한 문어 낚지 등을 주로 생산하며, 일부 농어, 우럭, 쏨뱅이, 감성돔 등을 어획하고 있다. 적금어촌계에 소속된 섬은 상과도, 하과도, 머구섬, 응도, 개똥여, 오린여, 내섬, 연목여 등이 있다.

7) 적금보건진료

1986년 7월 1일 현위치(화정면 적금뒷등길 27)에 개소하였다. 2018년 2월 23일 새로 신축하였다.



적금보건진료소(2008)



적금보건진료소(2020)



타포니



몽돌 해변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적금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나, 섬의 양쪽 끝부분이 동쪽으로 휘어져 만입하고 있다. 섬 전체가 낮은 구릉지를 이루어 섬 규모에 비해 경작지가 많은 편이다.

(1) 몽돌해변

고흥 영남면 우천리와 여수 화양면 둔병도 사이에 남북으로 향하고 있는 섬으로 꽃과 만이 발달하였고, 동쪽은 독섬대평길이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해변에는 몽돌들이 쌓여 몽돌해변을 만들었다. 특히, 하부의 3곳의 만에 큰 몽돌해변이 있다.

2) 지질

여자만에 분포하는 도서는 인근은 중생대 백악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암류는 고흥반도 북부와 여수반도, 나로도 등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응회암류는 경상계층 유천층군 중 화산암질암류 분출과 관련된 화산암 및 화산쇄설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편, 적금도 북쪽은 경상계층 유천층군에 속하는 신성리층이 분포하는 반면에 안산암과 안산암질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영남대교 주변은 안산암류가 주를 이루며, 기반암인 퇴적암류가 적금도 서쪽 일부 분포한다. 섬의 남쪽으로 기반암인 퇴적암류(역암, 세일, 사암) 등이 분포하며, 섬 전체에 걸쳐 관입 및 분출암류인 안산암이 산재되어 나타나며, 중앙부에 최후기층인 화산각력암이 분포한다.(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



적금-낭도 지질도 (박계현 외, 2003)

3) 토양

적금도는 퇴적암과 안산암류의 풍화토가 분포하고 있으며, 안산암류 지역에서는 잔적토가 우세한 반면, 퇴적암 지역은 붕적토와 충적붕적토양이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4) 기후

여자만은 우리나라 기후 구분상 남해안형에 속하는 곳으로 북적도 해류인 쿠로시오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쓰시마 난류와 황해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온화하여 강수가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평균 기온은 13~15℃이고, 최난월(8월) 평균기온은 약 25.6℃를 나타내며 최한월(1월) 평균기온은 약 2.7℃ 정도로 가장 추운 1월에도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온대성습윤기후(Cfa)의 특성을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1,460mm로 우리나라 다우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그 가운데 여름철 집중적인 강수형태로 6~8월 3개월간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50~60%를 차지한다. 장마전선과 태풍 빈도에 따라 연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이며, 1999년의 경우 2,600mm를 넘는 연강수량을 나타내기도 했다.

5) 주변해역조류

여자만 평균 해수면은 약 1.94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2.141m, 저조위는 -2.06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7.7°C, 연평균 염분농도는 32.9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32.0~33.9PSU이다.

최강창조류 0.93m/sec, 최강낙조류 0.82m/sec 평면해면 181m, 대조차 297m, 소조차 108m이다. 민물의 유입량이 적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평균수심 40m 내외, 최대조차 3.9~4.2m이다.(국토해양부, 2011)

6) 주변환경

적금도는 여수시 화정면의 서쪽과 고흥군 영남면 동쪽 해안에 있는데, 대교 건설로 고흥과 연결되어 있다. 적금도 부근에 낭도, 둔병도, 상과도, 하과도, 오도, 매섬(鷹島 응도), 소당도 등이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섬으로 섬의 동쪽에 규모가 큰 만과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였다. 적금도의 동쪽해안은 독섬대평길로 이어져 있으나, 고흥반도의 맞은편인 서쪽은 자연해안을 유지하고 있다.



상과도



하과도

7) 주변도서

고흥반도의 점암면 우천리 해안에서 적금수도를 사이에 두고 동쪽 해상에 위치하며 부근에 낭도·둔병도, 조발도 등이 있다. 남북으로 긴 형태를 이루며 동쪽 해안은 전체가 만입을 이루며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주변에 무인도서로 소당도, 만월도, 응도, 독도, 연도, 머구섬(梧島 오도) 등이 있다.



응도



소당도



오도 (머구섬)

8) 오도등대

적금도 동쪽 작은 바위섬인 오도(머구섬, 머구섬)에 위치한 무인등대이다. 위치는 N34°37'36" E 127°31'30"이며, 최초 점등일은 2002년 11월 25일이다. 광파표지 기종은 250mm, 등질은 FIW 6s이다. 광달거리는 광학 11해리, 명목 8해리이다.

이 등대를 기준으로 서편에는 적금도, 동편에는 상과도와 하과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낭도가 위치하고 있는 꽤 좁은 해역이다.



오도등대

이 등대의 남쪽 해역은 좁은 수로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 어망이 위치하고, 동편의 상과도와 하과도 사이는 노출암으로 사실상 막혀있는 고립된 수로이기 때문에 적금도 남쪽 해상에서 적금도로 향하는 선박들은 이 등대의 동편으로 멀리 떨어진 둔병도와 상과도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이 등대의 북쪽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식생과 생태

1) 생태자원

생태자연도상 산지 일부는 2등급이고, 경작지와 거주지 대부분은 이용과 개발가능한 3등급이다.

2) 식물 식생

(1) 자생식물 및 특산종

적금도에 자생하는 상록넓은잎 수종은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송악 등이 생태우점한다. 참식나무, 육박나무와 여수지역 특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람도 간혹 출현하고 있다. 바닷가 쪽으로 염생식물인 번행초군락과 메꽃군락이 생태우점한다. 숲의 천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등장해 “숲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숲을 점령하는 서어나무도 쉽게 볼 수 있다.

(2) 주요 식생 및 군락지

적금도의 주요 식생은 섬의 일부 지역에 군데군데 곶솔군락이 섬 전체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능선을 따라 갈잎넓은잎나무인 소사나무군락과 아까시나무군락, 붉나무군락, 예덕나무군락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지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까시나무군락은 섬 지역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식생이다. 이는 적금도가 일제강점기 무렵 인위적으로 개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관찰되는 닭의장풀과 쇠무릎(우슬), 소루쟁이, 피 등도 군락을 이룬다. 섬의 중앙부에 농경지와 민가가 있으며, 휴경지에는 광대나물, 개망초, 환삼덩쿨 등 휴경지의 초기 우점종들이 출현한다. 초본식물로는 큰개불알풀, 광대나물, 지칭개, 귀리, 갯군락이 있다.



팔배나무

팽이밥

서어나무

지칭개

(3) 식물상

이 지역의 특징 종은 상록잎수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곰솔군락이 있다. 생달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참식나무 등의 개체도 많이 자생한다. 갈잎수종으로는 천선과, 소사나무, 참나무, 때죽나무, 팔배나무, 아까시 등이 보인다. 초본류는 영경귀, 참취, 발풀고사리, 보춘화, 큰까치수염, 골등골나물, 십자고사리, 참나리 등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외 민가 주변으로 새, 솔새, 띠, 억새, 질경이,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망초, 개망초, 고마리, 가막사리, 여뀌 등의 개체도 많이 보인다. 주름조개풀, 쥐꼬리새풀, 짚신나물, 쇠뜨기, 파리풀,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땀땀이덩굴 등의 초본류도 출현하고 있다.



때죽나무

회양목

변행초

민들레

특히 섬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아까시 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이 보인다. 아까시나무(black locust)는 콩아과(Faboid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종(種) 이름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가짜 아카시아(False Acacia)’이다. 이 이름이 영어권 국가에서 종종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아까시나무를 “아카시아”로 부른다. 학계에서는 “아까시”로 불러주기 운동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과수원길”이라는 가요가 워낙 유명해서 가사에 등장하는 아카시아가 우리 정서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한때 유명 식품회사의 “아카시아껌”도 서민들의 정서 깊숙이 자리 잡아서 아카시아를 “아까시”로 불러주자는 운동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 강산을 황폐화 시키면서 자리 잡은 침입종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여긴다. 드물게 섬 지역인 적금도에 아까시가 많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즈음에 개발간섭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폐광동굴과 같이 그 시절 이 지역이 금광이 있다는 소문으로 금광을 개발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은 아까시의 대접이 많이 달라졌다. 밀원식물로서 아카시아 꿀이 일반화되었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때문이다. 콩과 식물이 땅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또한, 이른 봄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서 달콤한 아카시아 향이 추억소환에도 그만이다.

폐금광 굴이 있는 주변으로 가는 길목에는 팔배나무도 군데군데 활짝 피어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다. 참나리도 군락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고, 넝쿨 식물로 마삭줄, 노박덩굴, 머루덩굴 등의 개체도 상당히 보인다. 사철푸른잎의 넝쿨성 나무인 보리장나무가 여기저기 열매를 맺고 있다.

요막교쪽 해상펜션 앞 바닷가 밭 언덕에는 참나리군락과 무릇이 떼군락을 이루고 있다. 진주강씨정부인김씨효열비 및 폐교의 정원수로 는 회양목을 주로 심어서 이 지역에서는 회양목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열매가 튼실히 열려있다.



아까시나무

3) 육상동물

인근의 낭도에 분포하는 생물과 유사하다.

양서파충류는 도롱뇽, 청개구리, 두꺼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양서류와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누룩뱀, 쇠살모사 등 파충류가 서식 가능성이 높다.

곤충류는 된장잠자리, 밀잠자리, 노랑무늬먼지벌레, 남방노랑나비, 남방제비나비, 네발나비, 왕자팔랑나비, 꼬마수중다리밤나방, 남방부전나비, 넓은띠흰꼬마밤나방, 노랑다리들명나방, 노랑췌기나방, 노랑줄박각시, 대만수염나방, 독나방, 목화명나방, 무궁화잎밤나방, 물결나비, 밤색갈고리나방, 짙은밤나방, 암먹부전나비, 애기세줄나비, 어린밤나방, 작은주홍부전나비, 점흰독나방, 좁쌀무늬밤나방, 줄점불나방, 줄점팔랑나비, 흰띠명나방, 검은다리실베짚이, 긴날개여치, 넓적배허리노린재, 두점배허리노린재, 산바퀴, 애매미, 왕사마귀, 왕파리매, 청동풍뎡이, 털매미, 한국땅딸보메뚜기, 홍보라노린재 등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

조류는 왜가리, 쇠백로, 붉은배새매, 조롱이, 새매, 황조롱이, 매, 꿩, 중부리도요, 갑작도요, 꿩이갈매기, 멧비둘기, 물총새, 파랑새, 쇠딱다구리, 제비, 귀제비,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백할미새, 큰발총다리, 흥동새, 직박구리, 때까치, 딱새, 검은딱새, 바다직박구리, 쇠솔딱새, 큰유리새, 흰배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눈썹솔새, 산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어치, 물까치, 까치, 까마귀 등이 서식한다.

포유류는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두더지, 등줄쥐, 멧돼지, 멧밭쥐, 멧토끼, 염소, 족제비, 집쥐, 청설모 등이 분포한다.



백로



적금 대평에 밀린 상괭이



제비집



고양이를 피해 생선말리기

4) 해양생물

적금도 주변 조하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은 총 30종이 출현하였으며 편형동물 1종, 유형동물 1종, 환형동물 13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3종, 극피동물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형동물에서는 와충류, 유형동물에서는 끈벌레류가 출현하였으며, 환형동물에서는 등가시버들갯지렁이, 치로리미갯지렁이, 큰갈매기고리갯지렁이, 버들갯지렁이, 긴자락송곳갯지렁이, 양손갯지렁이, 버들갯지렁이류, 은갯지렁이, 얼굴갯지렁이류1, 얼굴갯지렁이류2, 얼굴갯지렁이류3, 실타래갯지렁이류, 실참갯지렁이류, 연체동물에서는 복족류, 절지동물에서는 긴발딱총새우, 안경옆새우류, 꼬마딱총새우, 계류, 썩붙이, 단각류, 옆새우류, 무딘이빨게, 꼬리다리옆새우류, 넓적뿔꼬마새우, 뿔리타옆새우류, 알통게붙이, 털다리게붙이, 극피동물에서는 아무르불가사리가 출현하였다.

해조류는 조간대에서 가시파래, 잎파래, 구멍갈파래, 꼬시래기, 지충이, 김, 미역, 갯생이모자반, 툫 등이 주로 관찰되었다.



파래류의 분포



갯생이모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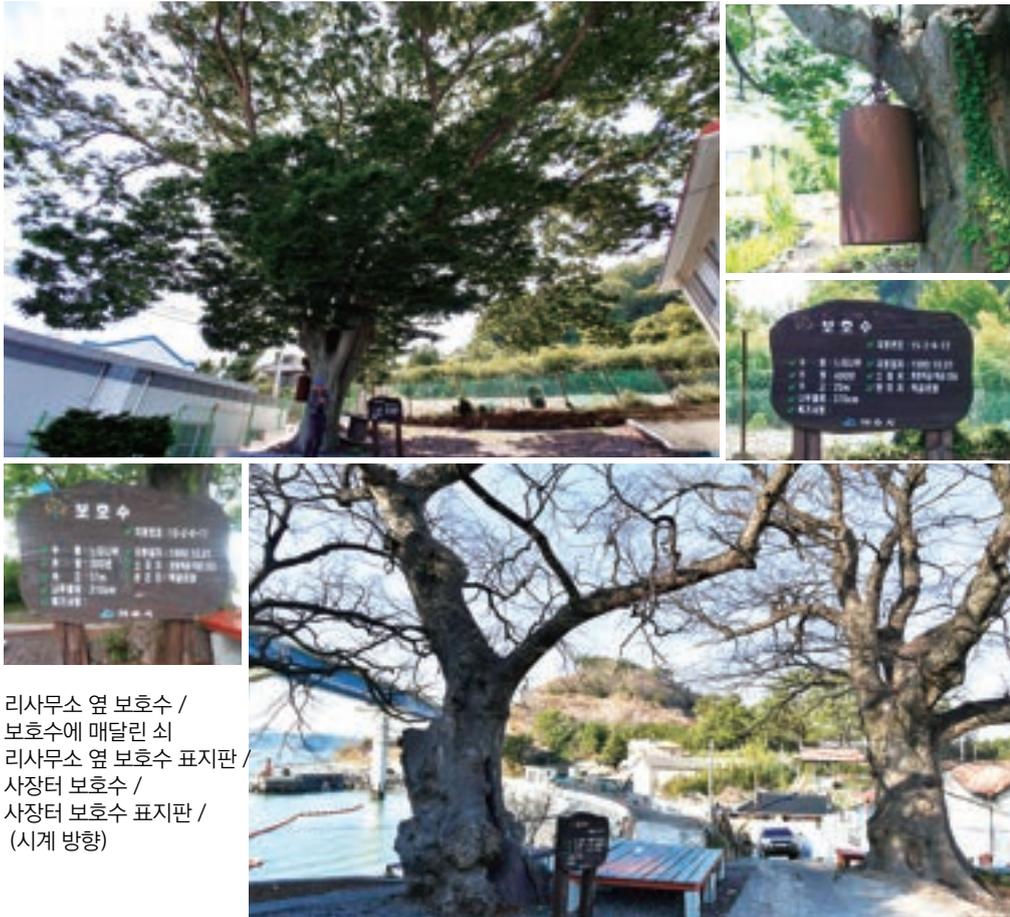
해초류는 총 1종이 출현하였으며, 일명 잘피라고 불리는 거머리말이 섬 항구 안쪽과 바깥쪽에 대단히 넓은 범위로 생육하였다.



선착장 앞 거머리말

5) 기타생태자원

화정면 적금리 253번지에 느티나무 2그루, 349번지에 느티나무 1그루가 각각 지정번호 15-2-6-11, 15-2-6-12로 1999년 10월 1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각각 약 300년, 400년 수고는 17m, 25m이다.



리사무소 옆 보호수 /
 보호수에 매달린 쇠
 리사무소 옆 보호수 표지판 /
 사장터 보호수 /
 사장터 보호수 표지판 /
 (시계 방향)

6) 수자원보호구역

남도 등 주변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산 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공유수면이나 인접구간 행위제한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여수시는 현재 육지부 39.8km², 해수면 372.5km²로 전체 412.3km²가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여자만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적금도는 1896년 돌산군이 설립될 당시 옥정면 적금도였으며, 면소재지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옥정면과 화개면을 합하여 화정면 적금리로 되었다.

적금도는 화정면의 서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여수이지만 고흥과 인접해 있다. 섬의 지형은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갖추었고, 비교적 낮고 평평한 섬으로 중앙은 지협부를 이룬다. 남북의 양 끝단이 동쪽으로 휘어 있어서 동쪽 해안은 전체가 만입을 이루며,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섬 중앙부의 동쪽 해안을 따라 길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섬의 서남쪽은 암석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어패류 산란지인 여자만의 관문에 위치한 만큼 잡히지 않는 어종이 없을 정도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2016년 말에 고흥군 영남면과 연결하는 팔영대교가 개통되었고, 2020년 2월에는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적금도 연륙·연도교가 연결되어 여수에서 차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팔영대교

나. 마을유래

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1795년) 5월 22일 기사에 “애도(艾島)·사랑도(四梁島)·초도(草島)·죽도(竹島)·지오도(之五島)·평도(平島)·거문도(巨文島)·적이도(赤爾島)는 바로 좌수영(左水營)의 둔전(屯田)이 있는 곳인데 세금 납부 액수가 민결(民結)보다 배나 되는 데다가 감영(監營)의 비장(裨將)들이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매우 많으니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에 있는데 여기에서 적이도가 지금의 적금도이다. 좌수영의 둔전이었다고 하는데 관리는 여도만호진에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적이도는 순천부가 아닌 흥양현에 속한 땅으로 1789년의 호구총수에서도 적이도(赤爾島)로 표기하고 있다.

적이도는 비변사인방안지도-호남지도(1740년)와 청구도(1834년)에는 적이도(赤尒島)로 표기하고 있으나, 대동여지도에는 적이도(赤爾島)로 표기하고 있어 한자 ‘너, 이(爾, 尒)’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천군 마을유래지에 따르면 조선시대 초기에는 ‘적포’ 또는 ‘적호’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적포(赤浦)는 ‘붉을 적’자에 ‘갯가 포’자를 썼는데 섬 주변에 바위들이 노을에 물들어 붉은색을 띠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이후 구한말 여수군 설립시 금광이 있다하여 ‘쌓을 적(積)’자, ‘쇠 금(金)’자를 써서 적금리로 부르고 있다고 하였으나, 적포는 赤爾를 잘못 인용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청구도



호남연해형편도

임진왜란 당시 고령신씨(高靈申氏)인 여개씨가 난을 피하기 위해 승주군 낙안면에서 처음 입도하여 정착하였다. 입도 당시 성명미상의 백씨와 하씨가 같이 입향하였으나, 그 후손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후 전주이씨(全州李氏), 함안조씨(咸安趙氏), 진주강씨(晋州姜氏), 밀양박씨(密陽朴氏), 고령신씨 등이 입도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해지며 고령신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다. 사건·사고

1) 적금도 금광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적금도에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성명미상의 전북 고창사람이 채광을 시도하여 실패하고 이어서 전주이씨란 사람이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말기에는 일본 사람이 채광을 시도하였다. 금맥을 발견했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했다. 채광한 굴은 4곳이 남아 있다. 마을에서 가까운 포구 오른쪽 끝에 있는 굴은 깊이가 70~80m 정도로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황금박쥐가 서식하였다는 설이 있다.



금광 입구

2) 적금도 우물

1923년 당시 적금도에는 7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먹을 물이 부족하여 고흥지방에서 배를 이용하여 물을 충당하였다. 당시 면장인 임진태가 섬 중앙에서 지하수를 발견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물이 나왔으며, 수질 상태도 양호하여 적금도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였다.

3) 장티푸스 발병

1963년 5월 적금도에 장티푸스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방역진을 현지에 급파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치료했으나 2명이 사망하였다. 발병 당시 적금도에는 아직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 병이 만연되었다고 한다.



장티푸스 기사



서해조업 기사



4) 서해 조업

1960~70년대 적금도 사람들은 군산을 비롯한 서해 연평도 앞바다까지 나가 조기를 잡았는데 그러던 중 신모씨가 1971년 5월 서해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조업하다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어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었다. 이후 1년 만에 남한으로 돌아왔으나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라.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유물산포지

마을 뒤편 요막산에서 대팽이 해안 쪽으로 뺀 내린 평지에 유물산포지1이 있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바다(대팽이 해안)와 접하고 있다. 수습유물은 회청색 경질토기편, 청자편, 백자편 등이다. 유적의 입지나 수습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주거와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

적금 유물산포지1에서 남동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마을과 인접한 곳에는 유물산포지2가 위치하고 있다. 유물산포지1과 마찬가지로 주변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가 위치한다. 수습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청자편, 백자편 등이다. 유적의 입지나 수습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와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



유물산포지1



유물산포지2

2) 사장(射場)터

마을 앞 동산에 400~500년 수령의 괴목나무 5그루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고흥군 여호에 있는 만호의 전초기지인 초병들의 활터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남아있는 괴목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사장터 보호수 (2008)

마. 적금도의 역사와 인물

1) 의병의 활동 무대

적금도를 비롯한 여자만 입구의 섬들은 동학 농민 혁명이 끝나고 의병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 의병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융희 3년(1909) 7월 24일

7월 18일, 관내 돌산군 옥정면 적적도(積赤島 : 적금도)에 약 40명의 폭도가 잠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출장 간 토벌대가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소득이 없이 20일 오후 3시에 되돌아 왔다. 그러나 같은 날 적적도 연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인 어부들이 약 70명의 폭도에게 습격당했다는 급보를 받고 돌산 주재소의 1명과 돌산 수비대 상등병 이하 7명이 협력하여 20일 오후 4시에 출발하여 적적도 부근으로 급히 출발했다.

2) 개량서당²²⁾

개항 후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함께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교육기관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사설교육기관인 서당은 계속 유지되어 일반대중의 초등교육을 담당해왔다. 당시의 서당은 조선시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재래서당과 시대변천에 적응하여 성격을 달리한 개량서당으로 나눌 수 있다.

1908년 일제의 통감부는 「서당관리에 관한 건」을 반포하여 서당의 시설을 개량하여 실용하게 할 것과, 교수방법·교수시간·교육내용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의 교육향상을 위한 개선이 아니라, 일본어 보급을 위한 것으로 개량이란 명목 아래 민족교육을 약화시키는 한편, 부족한 초등교육기관을 메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국권상실 이후에도 일제는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족사학에 대해서는 심하게 탄압하였으나, 서당에 대하여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재래의 서당을 개량하여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1910년대를 전후하여 제기되었는데, 1920년대에 들어와 교육열의 고조로 더욱 활발해졌다.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1608>

이러한 서당개량론의 공통점은 당시의 초등교육기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당을 정규초등기관에 준할 수 있도록 성격·교육내용·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서 민중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있는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당시 천도교가 앞장서서 대중교육을 위한 개량서당의 교사(校舍)·교사(教師)·학생·교과목 등에 관하여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교사(校舍)는 종래의 서당을 50~60명씩 수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야 하며, 교사(教師)는 한문교육 위주의 완고한 인물로 하지 말고, 국어·역사·산술 등 세계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인물 즉, 신구(新舊) 학문을 겸하여 알고 있는 인물로 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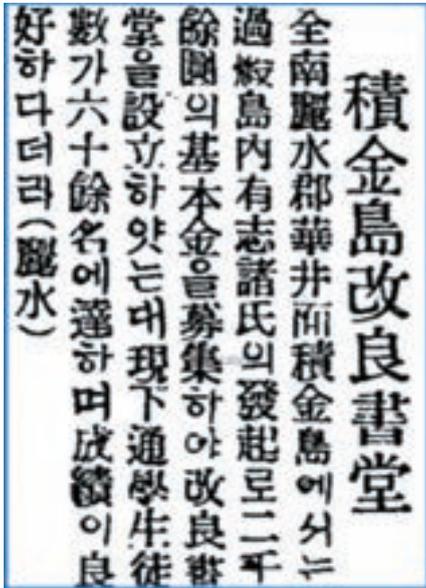
또한 교수법도 개선하여 단체로 몇 시간씩 즐겁게 뛰놀게 해야 하고, 교과목은 천자문·무제시(無題詩)·사략·고문(古文)·사서삼경·국어·산술·일본어·지리·역사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의 개량서당은 재래서당을 개량하여 설립하는 경우와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었다. 새로 설립하는 경우, 처음에는 사립학교나 사설 학술강습소(學術講習所)를 설립하려다 일제의 탄압책으로 인가받지 못해 계획을 바꾸어 개량서당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개량서당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래서당을 개량서당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2, 3개 또는 3, 4개를 병합하여 하나의 개량서당을 만들기도 하였다.

개량서당은 근대교육의 교과를 사용하고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여, 정규 학교를 대신해 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족교육의 장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당시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사립학교 등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자, 비정규 교육기관인 서당·야학·강습회 등을 통하여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서당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는데, 일제는 1918년에 「서당규칙」을 제정하여 서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수성을 지닌 재래서당에 대하여는 계속 온건책을 쓰면서 주로 개량서당에 대해서만 탄압하였다. 1929년에는 「서당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서당의 설립을 도지사인가제로 하여 설립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기존 서당을 폐쇄하는 등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서당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서당을 간이학교(簡易學校)로 개편하여 식민지 초등교육기관화하였다.



이 때에도 일제는 획일적인 서당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있거나 식민지 통치정책에 방해가 되는 서당에는 탄압을 하는 한편, 그 밖의 서당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개선, 서당교사에 대한 강습 등으로 식민지교육을 주입시킴은 물론 경비를 지원하여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일제 말기의 서당은 대부분 간이학교로 개편, 흡수되거나 식민지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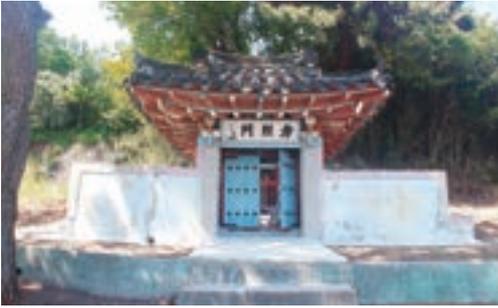
일제 중반까지의 이들 개량서당은 근대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던 시대에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저변확대와 문맹퇴치에 큰 구실을 하였으며, 민족의식의 고양과 애국계몽운동 실시에도 일

익을 담당하였다.

적금도에서 1923년 유지 제씨가 2천여 원의 기본금을 모집하여 개량서당을 설립하였는데 학생수가 6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3) 효열문 비각

<p>전박사효자강공두순지비</p> <p>건립연대 : 계미년(癸未年) 1월 찬(撰) : 이병관 서(書) : 박관규 총고(總高) : 190cm 비고(碑高) : 130cm 폭 : 45cm 두께 : 20cm</p>	<p>광산김씨효열비</p> <p>건립연대 : 계미년(癸未年) 1월 찬(撰) : 이윤중 서(書) : 박관규 총고(總高) : 190cm 비고(碑高) : 130cm 폭 : 45cm 두께 : 22cm</p>
--	--



효열문 정면



효열문 내부 비각



효열문 입구



효열문 강씨 명문 기와



전박사효자강공두순지비



광산김씨효열비

4) 고령신씨 공적비



운암고령신공지록기적비 정면



운암고령신공지록기적비 측면



운암고령신공지록기적비 후면

(1) 운암고령신공지록기적비

소재지 :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건립연대 : 1982년 4월
 찬(撰) : 민병한 / 서(書) : 임재호
 총고(總高) : 241cm
 비고(碑高) : 148cm
 폭 : 44cm / 두께 : 20cm

〈비문〉 여수의 신공연군이 그 선고되는 운암재의 품행과 도의를 고을 인사들에게 자문하고 모의하여 장차 돌을 깎아 정려문을 세우려 할새 나에게 비명을 요구하거늘 삼가 살피니 공의 휘는 지록이요, 자는 지선이니 운암은 그의 호이니라. 고령 시조 휘 성용은 검교군기감이요, 5세 휘 덕린은 순은공 예의판서제학이요, 6세 휘는 포혈이요 호공이니 좌찬성이요, 7세 휘 제는 감찰공이요

, 9세 휘 석은 제주공이요, 13세 휘 홍수는 훈정공이요, 14세 휘 여해는 판서공이요, 15세 휘 한창은 은사공이요, 고의 휘 용권은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여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손하여 스스로 법도에 맞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여섯 집이 오순도순 살고 일흔 종족이 한 마을에 모였으나, 사람들이 이간하는 말이 없더라. 집에 검약함을 유지하여 화려함에 끌림을 없애고 몸소 삼가 근면함을 잡아 무너진 풍습을 힘써 진압하니 고을의 재주있는 사람들이 같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있더라. 또 집에서 다스림에 엄연히 법도가 있으니 그 맏아들 공연이 재주와 학식이 통하여 단련되고 명성이 무성하여 원근에서 이름을 아니 슬프다! 안으로 덕행의 순수함 갖추어 공과 같으나 명성과 참됨이 나타나지 않아 가히 슬퍼하노라. 배고 홍류씨는 부덕이 있더라. 공이 고종 경진 11월 18일에 태어나 신미 3월 5일에 졸하다. 명에

이르나니, 화려함을 버리고 참됨을 취하여 스스로 닦고 얻으리라. 비년이위(匪年伊位) 하늘의 보답이 어그러짐이 없도다. 가정을 위해 집안일을 하니 덕은 가히 세속을 진압하니라. 적금리에 비를 세우니 지나가는 자 가히 본받으라.

찬정규장각 직학사 여흥 민병한 짓고, 평택인 임재호 쓰다.

(2) 호석고령신공연공덕비

소재지 :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 건립연대 : 1982년 4월

찬(撰) : 김낙원 / 서(書) : 임재호

총고(總高) : 241cm / 비고(碑高) : 148cm / 폭 : 44cm / 두께 : 20cm

<비문> 호석고령신공연선생은 본면 태생으로서 그의 투철한 애향심으로 일찍이 면내 2세의 학덕함양을 위하여 개량서원을 건립하고 몸소 교편을 잡았을뿐더러 향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코자 10여 성상에 걸쳐 도민에게 무료로 도선을 운영 봉사해 왔으며, 더욱이 메마른 일제강점기에도 애국애향정신이 투철하여 자진 구휼미를 풀어 주민의 기한을 면하게하는 등 광복 전후를 통하여 본면에 기여한 선생의 은덕이 자못 지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에 궁(亘)한 본면 면장 재직 중의 치적을 말하기는 쉽되 행하는 자 보기 드문 오늘의 세태에 있어서 일생을 한결같이 선린안민에 몸 바쳐 온 선생의 행적이 어찌 가극하다 아니하리요. 적으나마 선생의 빛나는 공적을 천추에 기리고자 면민유지의 정성을 모아 이 길지에 비를 세우노라.

서기 1982년 임술 4월 일립 / 우정 김낙원 찬 평택후인 임재호 서



호석고령신공연공덕비 정면



호석고령신공연공덕비 측면



호석고령신공연공덕비 후면

(3) 가선대부고령신공지록기적비

총고(總高) : 159cm / 비고(碑高) : 101cm

폭 : 45cm / 두께 : 21cm



가선대부고령신공지록기적비 정면



가선대부고령신공지록기적비 측면



가선대부고령신공지록기적비 후면

(4) 이사 장흥고공 흥기
의원 고령신공 재협 씨지시혜비



- 소재지 :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 건립연대 : 병오년(丙午年, 1966년) 6월
- 비고(碑高) : 124cm
- 폭 : 37cm
- 두께 : 25cm

3. 섬 생활의 변천

가. 적금도의 생업

적금도는 여자만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생활권이다. 여자만의 뜻이 ‘스스로 물자를 해결했다’는 유래가 있듯 물산이 아주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 물산이 풍부했다는 것은 산과 논밭, 바다에서 동시에 물자 조달이 가능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섬은 전체가 낮은 구릉지로 섬의 규모에 비해 경작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여수시지만, 지리적으로는 고흥에 가깝다. 자연적으로 생활권이 여수와 고흥으로 분산되면서 양쪽 지역의 이점을 절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1) 농축산업

(1) 밭농사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 고구마, 콩, 쌀 등을 생산 재배했다.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른 여름에 추수했는데 먹을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협에 수매하였다.

추수는 일일이 낫으로 베고, 밭에 그대로 널어서 며칠을 말린다. 말린 보릿단은 탈곡하기 전까지 벧가리를 만들어 쌓아 놓는다. 보리 낱알은 비를 맞게 되면 썩거나, 발아되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벧가리를 쌓는 일은 기술에 속한다. 단을 잘못 쌓으면 탈곡 전까지 비바람이나 부실로 인해 쓰러질 수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다. 주로 남자 어른 중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단을 쌓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릿단을 모으는 일을 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옆집이나, 동네 보릿단을 쌓아주는 품앗이를 가기도 했다.



고추말리기 (2010)



들깨말리기 (2010)



고구마밭과 그물



밭작물과 그물

보리는 그때그때 타작하지 않고 낱을 잡아서 한꺼번에 한다. 먼지가 많이 나고 보릿대가 온 집안에 날리기 때문이다. 전근대에 각종 농작물을 탈곡하는 방법은 다양했는데 보리타작은 도리깨라는 대나무로 만든 기구로 두들겨서 낱알을 떨어냈다.

탈곡기가 보급되고 난 이후에 타작할 때는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보리마당에서 타작을 했다. 탈곡기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을사람들이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타작을 했다. 보리농사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 예전에 주작물이었던 고구마도 이제 더 이상 절간을 위해 심지 않는다. 고구마는 멧돼지로부터 방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재배한다. 가정에서 간식거리로 먹을 양만큼씩 심고, 돼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몇 겹의 그물을 칠 수밖에 없다. 대신 멧돼지가 잘 먹지 않는 마늘을 많이 심는다. 여름에는 주로 배추, 무, 콩 등과 집에서 먹을 푸성귀를 심는 정도이다.

(2) 논농사

적금도는 인근의 다른 섬들보다 전체 면적 중 논 면적이 많은 편이다. 농지면적이 넓었고, 인근의 섬들보다 물 사정도 비교적 좋았기 때문이다.

논농사는 거의 벼를 생산했는데, 요즘처럼 텍사와 같은 약제를 심거나 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다른 작물을 심지 않고 땅을 비워두었는데 겨울에 논 작물이 마땅치 않았고, 휴경의 의미도 있었다.

이 지역의 논농사는 주로 천수답이라서 봄에 비가 오면 못자리에 물을 받아서 모판을 만들었다. 씨나락을 물에 며칠 불려서 못자리에 뿌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른 여름에 모내기를 했다.

적금도 신화경²³⁾씨의 증언이다.

“적금도는 논농사가 어떻습니까?”

“적금도는 논이 많아지라. 근디 지금은 갈대밭이 뿔뿔했어요. 귀찮게 누가 논농사를 짓는대요.”

논농사를 짓지 않아 논이 모두 묵전이 되었다는 뜻이다.

모내기할 때 새참은 그집의 인심을 볼 수 있는 기준이었던 만큼 풍성했다. 모내기하는 날에는 오랜만에 쌀밥을 했다. 맨발로 반쯤 빠진 빨밭에서 나와 먹는 새참과 못밥맛은 이제 는 볼 수 없다. 요즘은 흑여 논밭에서 새참을 먹을 일이 있어도 짜장면이나 탕수육 등 중국집 배달로 대신한다고 한다.

(3) 축산업

적금마을 북쪽 대평이 해안 옆에 30~40년까지만 해도 소를 키우던 축사가 있었다. 축사 주인이 병이 들자 다른 사람에게 축사를 넘겼지만, 그마저도 얼마 후에 정리했다고 한다.



대평이 인근에 위치한 우막사

2) 어업

적금도는 여자만의 길목에 위치하면서 수심이 낮고, 갯벌이 잘 형성되어 여자만의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 넓은 갯벌에서는 김양식과 굴양식, 피조개양식 등을 했다.

고흥반도 육지부와 인접한 수로여서 물살이 빠르고, 암석이 많아 물고기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주로 멸치, 조기, 민어, 장어, 돛 등이 많이 잡혀서 낚시꾼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23) 신화경: 1960년생 - 25살에 외지 생활. 10여 년 전에 고향으로 귀촌하여 마을 이장 등을 역임.



대평이 갯벌



대평이 갯벌 안내판

특산물로는 돌게도 잡힌다. 9~10월에는 문어 통발을 하고,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의 낙지를 잡았다. 갯벌이 넓게 형성되어 호미만 들이대면 나오는 바지락은 연중 생산되어 주민들의 큰 소득원이다. 적금도에서 바지락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바지락 유생들이 떠다니며 회유하는 기간에 유생이 머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바지락 종패는 세물이나 네물 때 물이 빠진 수면 위로 노출되는 땅에 부착한다. 부착 시기를 잘 맞춰서 유생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기와 시간, 위치를 잘 선택해서 종패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문어잡이 (2008)



문어단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



영트는 날 마을 어르신들의 손수레가
질서 정연하게 주차되어 있다.

바지락 어장은 어촌계에
서 관리하며, 영을 트면 어촌
계원들이 한 집에 한 명씩 나
와서 바지락을 채취한다. 채
취한 바지락은 마을에서 공동
으로 판매하여 개인별로 채취

한 만큼 현금으로 나눠준다. 작업한 바지락은 바로 광양을 거쳐 부산으로 보내져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일본에서는 다음날 아침 7시에 경매에 붙여진다.

마을에서 조성한 마을 어장에서는 바지락, 참꼬막, 새꼬막, 전복, 해삼 등을 공동으로 관
리한다. 미역과 다시마도 많이 생산되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으로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한다.

섬 주민들은 물때가 좋을 때는 갯길을 한다. 물때는 주로 6~8물 사이가 좋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온다. 음력을 기준으로 14~16일과 29~말일과 1일 사이가 주로 좋은 물때이다. 이
때는 물이 많이 빠져서 바지락과 꼬막을 캐고 파래를 뜯고 해삼, 전복을 채취할 수 있다. 바
지락이나 꼬막은 특별히 마을에서 영을 터서 캐기 때문에 영 트는 날을 이용한다. 전복이나
해삼은 1년에 몇 번 물이 완전히 많이 빠지는 영등시 인근에만 채취한다. 평상시 물때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는 어종만 채취할 수 있다.

물때 좋은 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도구는 손수레이다. 손수레는 따로 제작하는게 아니고 주로 아이들의 유모차가 이용된다. 아이들이 커서 쓸 수 없는 유모차를 장식을 제거하고 손수레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신다. 손수레는 짐을 이동하는 수단도 되지만 평생 일하시면서 망가진 무릎을 보호하고 걸을 수 있는 보조기 역할도 한다. 마을에서 이 유모차 손수레를 잘 구하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영 트는 날 바닷가 풍경은 바닷가에서 갯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줄줄이 줄지어 선 어르신들의 승용차 주차 모습도 풍경이 된다. 누가 따로 정하지도 않았지만 질서 정연하게 주차를 하고 바다로 들어가서 갯것을 한다.

인근의 둔병도처럼 10여 년 전까지 김을 바다에서 채취해 가지고 와 물김을 잘게 잘라 깨끗이 씻어서 김틀을 놓고 김 발장에 뜬다. 양지바른 곳에 벗짚으로 크게 틀을 짜서 세워 김을 말렸다. 해질녘에 김 발장을 걷어서 김을 발장에서 떼어낸 후 100장씩 묶어서 팔았다.



김발장에 김을 말리는 모습 (2011)



적금도 어업 (2010)

나. 적금도의 생활문화공간

적금도에는 인근의 다른 섬에 비해서 민속이 많은 편이다.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보살피 준 신에게 감사드리는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는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마귀를 누르는 행사 겸 매구를 치면서 놀이로서 즐겼다.

어느 섬이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식수 조달이다. 옛날엔 물이 귀해서 인근 고흥에서 배를 이용해 물을 길어다 먹는 경우도 많았다.

1923년 당시 면장이던 임진태가 섬 중앙에서 지하수를 발견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하수가 솟아나와 적금도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였다. 주로 섬 지역에서 지하수를 파면 찌꺼기가 나와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질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한다.



큰마을 위쪽 발아래 우물



학교 아래 깊은 우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은 3곳이다. 우물은 일부 몇 가구만 이용하고, 짐짐마다 지하수를 직접 파서 식수를 해결한다.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기는 하나 간이상수도는 경로당에 서만 사용한다. 최근 여수와 다리로 연결된 후 상수도 공사를 했다.

어느 섬이나 마을 약수터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적금도에는 도내기에 약수터가 있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는 않는다. 재미있는 샘도 있다. 마을 어른들이 논밭에 일하러 지나다니면서 목을 축이라고 만든 향아리 샘이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조그마한 향아리를 묻어서 웅달샘을 만들었다. 줄줄 흐르는 물은 아니지만 푹푹 떨어지는 물이 향아리에 가득 차고, 그 속에 조그만 바가지까지 준비해 두었다. 마을 어른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면서도 추억을 자극할 만큼 예쁜 샘이기도 하다.



도네기샘



항아리샘



독샘

마을회관은 다른 샘들과는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육지 등에 비해도 규모가 빠지지 않는다.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마을회관이라기 보다는 마치 개인 정원 같다. 마을회관 옆에 거대한 보호수와 회관 뜰의 조경수도 잘 관리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금도는 1970년대에는 정주민구가 850명에 육박했다. 그 시절엔 마을구판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즉석에서 막걸리도 팔고 잔술도 팔았다. 만물상 역할을 해야 했으므로 구판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 정주민구가 점점 줄어들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구판장의 역할이 적어지고 마땅히 할 사람도 없었다. 구판장은 마을에서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가 운영, 관리하였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졌다.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금의 파출소가 위치한 개인집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파출소 자리로 옮기기 전의 구판장 자리에 마을회관을 만들었다. 마을에서 상금으로 탄 돈과 기금을 모아서 땅을 좀 더 확보해 마을회관을 지었다. 이후 옮긴 구판장 자리는 적금파출소가 되었다.

마을에는 아직도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집이 있다. 날마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주문생산한다.



손질된 어구

적금도는 2006년에 마을어업에 참여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최우수공동체로 대통령단체 표창과 함께 3억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여자만 입구의 양질의 넓은 갯벌에서 당시 78어가 182명이 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70세 이상 노인 가구를 뺀 58명(당초 79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적금자율관리공동체’는 마을 내 350여 ha에 이르는 전복·바지락양식장과 각종 해조류 채취장 등의 어업권을 관리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여수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서 전국 최초의 ‘어민 주식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 자격은 ‘현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순수 어민’으로 제한했는데 돈 많은 외지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어촌계원은 58명이다. 자산 규모는 계속 불고 있다. 계원들은 전복과 해삼을 길러 잡는다. 천혜의 환경에 개펄이 형성되고 거기서 자라는 바지락과 참꼬막을 채취한다. 갯바위에서 자라는 해조류 등도 같이 관리해서 마을 소득원이나 개인 소득으로 잡는다. 적금마을 공동체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 바다 참전복’이란 상표도 개발했다.

- ▶ 어장의 위탁운영과 빈매 등을 통한 자원의 고갈로 어장의 황폐 노후화 관리
- ▶ 마을어장의 위탁운영에서 어촌계직영 운영 전환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 ▶ 회원의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공동어장의 분과별 책임운영방식전환을 위해 자율관리공동체의 추진이 이루어졌다.

수입의 10%는 어린 종패 살포와 어장 정화, 시설투자와 함께 ‘고향 땅 지키기 운동’에 쓰인다. 실제로 공동체는 여수~고흥간 연륙교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내놓은 땅 6만8000m²를 사들였다. 적금도에 땅을 사려는 투기꾼들에게 ‘고향 땅’을 내줄 수 없다는 공동체 의견이 모아진 결과였다.



해상펜션



농협창고

공동체는 현대식 직거래장터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상펜션도 건립했다. 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육도 많이 먹기도 했다는데 사업이 성공하자 마을 사람들의 대접이 확 달라졌다고 한다.

공동체 사업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 주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매월 생활비도 지급했다.

보리와 고구마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수매된 보리와 절간을 보관하던 농협창고가 공매에 나왔다. 외지인들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마을 공동체에서 공매에 참여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창고를 매입하지 못했다. 마을주민들은 투기꾼들이 작정하고 들어와서 농협창고 땅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농어촌체험마을도 한때는 활성화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적금해상펜션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농어촌체험활동 표지판 (2010)



어촌체험마을 학교 리모델링 (2010)



어촌체험마을 강의 (2010)



어촌체험마을 강의 (2010)



쓰레기장(2008)



쓰레기장



의원고령신공시헤비

섬 곳곳에 사당과 비석들이 종종 눈에 띈다. 고령신씨 세거지였음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고령신씨 관련 비석과 사당들이 많다. “가선대부고령신공지록기적비”는 발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다. “의원고령신공시헤비”는 발 입구에 방치되어 멧돼지 방지를 위한 그물의 고리로 쓰인다. 효열문은 4월 초에는 벽체 곳곳에 금이 간 채 수풀 속에 방치되다가 5월에 주변을 정리하고 보수하였다.

마을의 오염을 막기 위해 마을 아래쪽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던 장소가 있다. 연륙연도교 건설 이후에는 쓰레기양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각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팔영대교를 비롯한 연륙연도교 건설 이후 집을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팔영대교 아래쪽 해변에 식당과 편의점 등을 갖춘 적금리휴게소가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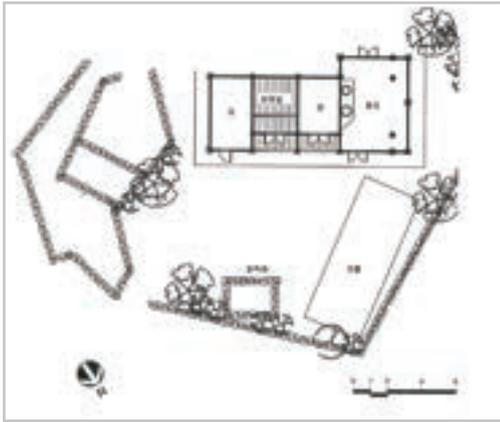


적금리휴게소

다. 전통민가

적금도에는 옛집을 연구할 수 있는 홍성표 가옥이 있다. 주소는 여수시 화정면 독섬대평길 37-13(적금리 324번지)으로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동향의 안채와 남향의 아래채가 튼 “ㄱ”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채와 아래채의 정면에 마당이 있고 안

채에서 마당 건너에 장독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안채의 좌측에 빨래터가 자리 잡고 있다.



홍성표 고택 단면도



보수이전 고택



보수이전 고택

안채의 구조는 2고주 5량의 가구로 호박돌 주초석 위에 4각 기둥을 세웠다. 아랫방의 전면은 기둥을 벽면보다 두드리게 만든 심벽(心壁)에 띠살의 덧문을 내었고, 왼쪽 벽면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마루방과 안방의 전면은 심벽에 쌍여달이의 띠살문을 달았다. 마루방의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놓고, 안방의 뒷면 벽에는 외부로 통하는 덧문을 내었다. 정지의 앞뒷면은 판벽에 살창을 내고 쌍여달이의 판장문을 달았으며, 오른쪽 벽을 판벽으로 하였다. 마루방과 안방의 전면에 띠마루를 두고,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한 민도리 집이다. 2009년 여수시 보조금으로 새롭게 보수하여 옛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한편, 주변의 다른 섬들처럼 적금도에서도 민가는 태풍 등의 바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두꺼운 밧줄로 지붕을 감거나 담장을 높이 쌓았다.



민가



민가 담벼락



돌담장과 지붕

라. 선박

적금도 어선은 1997년 말 기준으로 5ton 미만 동력선 45척과 10ton 이상 동력선 1척 등 총 46척의 선박이 등록되었으며, 무동력선은 등록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5ton 이상 동력선 1척과 5ton 미만 동력선 20척으로 총 21척이 등록되어 있어 1997년과 비교하면 26척이 감척되어 54.3%의 감척 비율을 보였다. 이는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구 감소와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지속적인 노후 어선 감척 정책의 결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선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적금도의 첫 여객선은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2년에 화정면 일대를 운항했던 정진호가 처음인 것으로 보이며, 이후 1970년대에는 1973년 4월 4일에 취항한 해영호가 운항하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는 1989년에 취항한 뉴시프린스호와 1995년에 취항한 청해호가 운항하였다. 이후 1999년 초에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화정면 일대 여객선의 항로가 일부 변경되면서 여수시 화정면 별가에서 출항하는 우리바다호가 취항하였다. 이후 2001년에 현재 여객선을 인수한 박남철선장이 20여 년간 운항하였다. 초기에는 운항 편수가 7시, 12시, 16시로 일일 3회 운항이었으나, 2016년 적금-팔영간 팔영대교가 개통되면서 하루 2회로 감축 운행하다가 2020년 2월 화양면에서 적금도까지 이어지는 연륙연도교가 완전개통되면서 여객선의 운항도 중단되었다.



적금도 어선 1



적금도 어선 2



적금-조발-벌가를 운항했던 우리바다호



적금도 어선

마. 적금도 주민들의 생애사

이제는 고향 적금도를 위해 헌신 할 때 - 적금도 마을 개발위원장 신채휴씨 이야기

‘금을 쌓아 놓은 섬’이란 이름과는 달리 옛날의 적금도 사람들의 삶은 무척 곤궁했다. 1953년 적금도에서 태어난 신채휴씨의 삶도 그러했다. 1966년 적금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낭도에 있는 여산중학교를 1년 다니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어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돈벌이를 위해 배를 타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서 일꾼으로 써 주질 않았다. 그렇게 1년을 적금도에서 보내다 나이 열다섯이 되어서야 동네 가까운 사람이 운영하던 배를 탈 수 있었다. 당시 대부분 어선이 그렇듯이 열댓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화장 일이었다. 그렇지만 달랑 밥만 짓는 일이 아니고, 배에서 해야되는 온갖 잔심부름은

모두 도맡아서 해야 했다. 뱃일이라는 것이 항상 일손이 부족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벅찬 일도 많았지만, 항상 부지런하고 야무진 성격 탓에 금방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쯤 적금도에서 배를 타다가 군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마을에서 배를 타던 많은 사람들이 군산으로 이주를 하였다. 적금도는 섬주민의 절반 정도가 신씨들이 살던 섬으로 가까운 집안사람들이 많아 가족과 같은 마을 분위기가 있었다. 신씨 다음으로는 강씨와 박씨, 홍씨 순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았다. 당시 적금도 주민들은 동쪽으로는 거제 바다에서, 서쪽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올라가 고기를 잡았는데 이 시기에 군산으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적금도 부근의 남해안 어장보다 서해 어장의 어획고가 좋았고, 남해안 선적의 배보다는 군산 등 서해안 선적의 배가 별이가 더 좋았다. 가까운 낭도나 조발, 둔병도에서는 여수나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적금도 사람들은 군산이나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 도회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돈을 벌면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직업을 물려주겠다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채휴씨의 마음도 흔들렸다. 홀몸 어머니가 있었지만 결국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고향 적금도의 친척형 신동휘씨에게 군산에 오면 배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어렵게 350원을 마련하여 군산을 향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수행 여객선 해영호를 타고 여수에 도착했다. 그의 나이 17살이었다. 여수역에서 이리(현 익산시)행 완행열차를 타고 이리역에 도착한 뒤 군산행 열차를 갈아타는 여정이었다.



고향 적금도마을 도네기에서 바지락 채취 중 신채휴씨

1969년 당시 군산에는 적금도에서 이주를 한 고향사람이 많았다. 대부분이 바다 가까운 해망동에 집을 얻어서 생활했다. 적금도 사람 중 더러는 적금도의 전답을 팔고 나와서

허름한 해망동 비탈의 집을 산 사람도 있었다. 한국전쟁 피난민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해망동은 군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남해의 절해고도 적금도의 땅값보다 해망동의 땅값이 더 저렴했을 정도였다. 선창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선원들이 많이 살았다. 군산과 가까운 서해의 섬이나 부안, 옥구, 서천, 장항 등지에서 모여든 바다 사람들에게 배를 타는 일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다.

신채휴씨가 군산에서 처음 일을 했던 배는 안강망이라 부르는 중선배였다. 여기서도 처음 맡은 첫 임무는 선원들의 밥을 책임지는 화장 일이었다. 9명 정도 선원이 타던 중선배에서 일하면서 밥하는 일뿐만 아니라 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던지 열심히 일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탓에 일찍 인정을 받았고, 얼마지 않아 별이가 더 좋은 대구리배를 타게 되었다. 기선저인망이라 부르는 대구리배는 12명이 타던 배로 당시 고기를 잘 잡아서 중선배보다 별이가 좋았다.

대구리배 백화호를 처음 탔을 때에도 처음에 맡은 일은 화장이었다. 화장이라고 해서 밥만 짓는 일만 아니라 잔심부름에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2년여 만에 밥하는 화장 일에서 벗어나 기관보조를 하게 되었다. 당시 선원들의 임금은 지금의 성과급제처럼 기본 수당을 받고 고기를 잡는 양에 따라 정해졌다.

70년도 초기에 적금도를 떠나 해망동에 터를 잡은 사람은 50여 호 남짓 되었다. 장항이 바라보이는 해망동은 군산의 어시장이 있는 마을이다. 바다를 매립하기 전에는 월명산 산비탈을 중심으로 집들이 들어섰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군산까지 밀려왔던 이북 사람을 중심으로 판잣집이 들어서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남해안 중심에 있던 적금도란 한 섬마을에서 50여 호가 넘게 이주를 하게 된 일은 특별한 일이었다. 적금도처럼 한 마을이 이주를 한 일은 주변에도 없는 일이었다. 적금도 이주민들은 대부분 적금도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70년대가 되면서 어선을 타던 사람들에게는 적금도보다 군산의 여건이 더 좋았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 되었고, 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채휴씨의 경우도 처음의 꿈은 더 공부하는 것이었다.

해망동에 터를 잡았던 사람 중에 여건이 나아진 사람들이 먼저 한 일은 땅을 가지는 일이었다. 그렇게 초기 이주자들이 많이 옮겨 갔던 곳은 옥구군 미면으로 이주였다. 금강 하구에 형성되었던 미면의 땅들은 넓은 농토가 특징으로 적금도에서 한 떼기 논도 없던 사람들에게 넓은 땅을 가지는 일은 큰 성공을 의미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을 모은 사람들은 눈을 사기 시작했고, 미면으로 이사를 했다. 적금도를 떠난 1세대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군산에서 적금도 향우회를 조직해서 활동했다. 가장 많을 때는 1백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지금은 해망동에 상가 건물만 남고, 민가가 거의 남지 않아 해망동에 사는 적금도 사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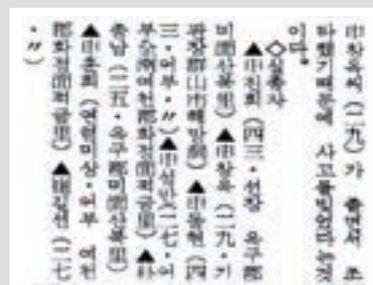
동아일보 1973. 02. 10 기사

【군산】졸던 어선 좌초 7명 실종

지난 8일 밤 9시경 옥구군 미면 십이동파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나갔던 기선저인망어선 제2대 양호(49t, 선장 신진희(43))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 어부 10명 중 선장 신씨 등 7명이 실종되고 3명은 해엄쳐 나왔다.

이날 사고가 나자 부서진 목재를 타고 무인도에 올라 9일 오전 8시경 강용래(20)씨 등에 의하면 사고 배는 선장이 키를 잡지 않고 경험이 없는 어부 신창욱(29)씨가 졸면서 조타했기 때문에 사고를 빚었다는 것이다.

실종자 : 신진희(43) 선장, 옥구군 미면 산북리, 신창욱(29) 기관장, 군산시 해망동, 신동현(43) 어부, 군산시 해망동, 신성만(27) 어부,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 박종남(25) 어부, 옥구군 미면 산북리, 신훈희(연령미상) 어부,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 최길선(27) 어부,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



당시 신문기사

위 기사는 신채휴씨의 초기 군산 시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973년 2월 10일, 구정 연휴가 끝나고 첫 조업을 나가는 길에 생긴 사건이었다. 적금도에서 군산으로 이주한 초기 이주민(적금도에서 군산 이주 후 다시 옥구 미면 산북리로 이주)과 젊은 어부들(군산시 해망동 거주), 그리고 아직 적금도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된 10명이 탄 어선에 사고가 난 것이다. 신채휴씨는 당시 사고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 친인척이 많이 사고를 당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며칠을 뛰어다니기도 했지요. 설이 끝나고 나도 그 대양호를 타기로 했는데 일정을 놓쳐서 배를 타질 못했었어요. 나도 그 배를 탔었다면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요~”



운영중인 군산의 사업체에서 아들과 함께 한 신채휴 위원장(우측)

적금도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고향사람끼리 구성된 삶의 현장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라고 회고한다.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에게 육지 생활은 금세 잊히는 법이라 해망동의 여러 여건들이 크게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을 시절이었다. 2년을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보내고 기관장으로 승진했다. 그렇게 10여년이 흘러 27세가 되던 1979년, 성복호란 배의 기관장으로 지내고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같은 배를 타던 선원(아내의 숙부)의 소개를 통해, 고흥에 살고 있던 장인과 장

모, 신부가 될 사람이 선을 보러 군산으로 왔다. 미리 이야기가 있어서였던지 군산 시내를 관광하고, 30분 정도 지나서 장모의 평가가 나왔다. “잘나진 않지만, 평생 식구를 굶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했다. 만난 지 3일 만에 약혼하고, 날을 잡아 결혼했다.

결혼으로 안정을 찾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이 되었다. 당시 선장은 일반 선원의 3.5배의 품삯을 받았는데 철저한 성과급제로 고기를 많이 잡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눈썰미 있고 머리가 좋았던 덕분에 신선장의 배는 서로 타려고 할 만큼 수익성이 좋았다.

결혼한 지 5~6년이 지나자 위험한 고기잡이 일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다행히도 당시 항만 매립과 같은 일이 많아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준설선에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 미련 없이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준설선 일을 하었는데 군산의 일자리가 울산으로 옮겨갈 형편이 되었다. 가족들과 협의하니 울산 이주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다시 한번 모험을 하였다.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시작으로 군산시 소룡동에 20평 규모의 슈퍼 운영을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불평 없이 따라와 준 부인에게 너무 감사했다. 막걸리, 빵, 우유부터 온갖 잡동사니까지 배달하는 초보 장사꾼이었지만 장사가 잘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끝나는 일이었지만, 바다에서 단련된 신채휴씨에게는 견딜 만한 일이었고, 들어오는 돈을 보면 신이 났다. 돈은 모았지만 쓸 시간이 없었고, 오죽하면 신발 살 시간이 없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있을 때가 허다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20평짜리에서 시작된 전세 슈퍼의 규모는 조금씩 커지면서 100여 평 규모의 슈퍼가 되었고, 전세 건물도 본인 건물로 바뀌었다. 이즈음에 사회적으로 슈퍼마켓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바뀌고,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체인점화되기 시작했다.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고민을 거듭하다 업종 전환을 모색하였다. 다행히 군산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이 한창이었고 슈퍼를 운영하면서 들었던 많은 정보를 모은 덕에 철물공구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과감히 슈퍼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다 철물공구상을 열었다. 업종 전환은 성공적이었다. 부부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다. 잠자는 시간이 하루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돈을 벌어 무엇을 할거냐”면서 부등켜 안고 웃으며 눈물도 흘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군이 가세했다. 학원을 운영하던 아들 내외가 큰 결심을 하고 먼저 제안을 했다. 아들 내외의 학원도 경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실세 없이 일하는 부모도 안쓰럽고, 구식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영 개선방법도 염두해 둔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다. 벌써 아들과 함께 운영하게 된 것이 10여 년이다. 사업장의 규모도 커져서 직원도 많아졌고 유한회사로 전환하였다. 아직 대표라는 직함만 있지 그동안 아들에게 경영권도 물려주고, 이제는 신채휴씨가 결재를 받는 입장이라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최근 신채휴씨는 고향 적금도에 새집을 마련하고 고향 적금도 마을의 개발위원장도 맡았다. 그동안 군산시에 거주하면서도 살고 있던 소룡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의 회장도 역임하면서 이웃과 주민을 위한 자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고향 적금도를 생각하게 되고 고향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꿈꾸어 왔다. 이젠 시간만 나면 고향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수구초심이라 했던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고향 마을의 옛 친구들과 함께 그리워만 했던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4. 적금도의 민속문화

가. 적금도의 지명유래



적금도의 지명지도

- 팽이밭<개> : 적금마을 남동쪽에 위치하며 옛날에 파래나 미역 등 해초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고양이의 발끝 모양을 닮은 지형으로 팽이밭이라 이름 붙여졌다.
- 논골<골> : 적금마을 북동쪽 약 0.8km 지점에 논이 많이 몰려있었던 골이다.
- 안투골<골> : 적금마을 남쪽 당산 인근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산모가 아이를 분만한 후 태와 불순물을 편안하게 묻어두는 곳이라 하여 안태골이라고 하였다가 안투골로 바뀌어 부른다.
- 가장골<골> : 적금 작은마을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묘를 쓰지 않고 시체를 가매장(초분)하여 둔 곳이다.
- 산바골<골> : 적금마을 북서쪽 지형에 각이 없고 타원형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산 사이에 주변의 바위가 형성되어 있어 산바골이라고 한다.
- 바람뿔<너설> : 적금마을 북쪽에 위치하며 바위로 형성된 지역으로 옛날에 천둥번개가 치면 벼락을 자주 맞았던 곳이라고 한다.
- 넓우<너설> : 적금 작은마을의 넓은 바위와 모래로 형성된 지역이다.
- 선바<너설> : 적금마을 북동쪽 약 300m 지점에 있는 선반처럼 바위가 걸쳐있어 선바라 한다.
- 사장등<등> : 적금리 작은마을 앞 해안에 있다. 300~400여 년 생 고목나무 5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고사했다. 임진왜란 당시 고흥 여도에 있는 만호의 전초기지로 병사의 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연목<목> : 적금마을 최북방에 있는 목으로 간조시에는 섬이 솟아오르고 만조시에는 잠긴다고 한다.



팽이밭



가장골



사장등



도네기



탑고지

- 도네기<목> : 적금마을 북동쪽에 있는 곳으로 목이나 굽이를 돌아가는 곳이란 의미로 쓰이는 지명이다.
- 갈미오<바위> : 적금마을 북서쪽에 있는 바위. 비가 오면 머리에 쓰는 갈미(삿갓)처럼 생겼다고 한다.
- 돈목<목> : 적금마을 남동쪽에 있는 목으로 탑고지 방향으로 돌아가는 곳에 있다.
- 몰락금<만> : 적금 큰마을과 작은마을의 경계에 있는 만. 지역 전체가 검은 색깔의 모래 자갈로 형성되어 있는 해변으로 몰락금이라 부른다. 해안지명 ‘~금’이나 ‘~구미’는 만을 이르는 지명이다.
- 탑고지<곶> : 적금마을 남쪽 낭도를 바라보는 곳이다.
- 작은당산<산> : 작은마을 상단에 있는 산으로 당산할머니를 모시는 곳이었다. 지금은 휴게소로 이용하고 있다.
- 신파당<사당> : 작은마을 중앙에 있던 사당으로 농부들이 한 해 풍년을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매구를 치면서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 만월도(만월섬, 약섬)<섬> : 적금마을의 북동쪽 여자만에 있는 섬으로 섬 전체가 하나의 바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보름달처럼 생겼다하여 만월도라 부른다.



개똥여



응도



오도



독여

- 매섬(응도, 사자섬)〈섬〉: 적금마을회관 남쪽 850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매처럼 생겼다고 매섬이라고 부른다. 한편, 섬의 형상이 사자를 닮아 사자섬이라고도 부른다.
- 오도(머구섬, 머그섬)〈섬〉: 적금마을회관 동쪽 약 950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앞바다 중앙에 바닷물이 세찬 곳에 위치한다. 머구(오동나무 열매)를 닮아 머구섬(머그섬)이라 불렀으며, ‘벽오동나무 오(梧)’자를 써서 오도라고도 한다. 고지도에는 오동도로 표기하였다. 무인등대인 오도등대가 설치되어 있다.
- 소당도(소맹이)〈섬〉: 적금마을회관 북쪽 1.5km 지점, 맨 끝에 있는 섬으로 섬이 작아 소맹이라고 부른다. 소당도는 소맹이의 한자표현이며, 간조가 되면 적금도와 연결된다.
- 독섬(독도, 돌섬)〈섬〉: 적금리 작은마을의 남동쪽 약 200m 지점에 바위가 집단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간조가 되면 섬 모양으로 우뚝 솟는다하여 독섬이라 부른다.
- 적금수도〈해협〉: 적금도와 고흥반도 사이의 수로로 물살이 빠르다.
- 여끝: 마을 입구에 오래된 팽나무 숲으로 우거진 언덕 아래를 여끝이라 불렀다. 사람이 엮드린 자세와 같은 바위를 비롯해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많았으나, 지금은 방파제 공사로 매립되었다.



송곳여



여끝

나. 적금도의 설화와 민요

1) 탐고지 전설

구전에 의하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군량미를 실은 선박이 이곳을 지나다가 조류의 때를 맞추기 위해 마을 앞 해변에 높이가 약 6층 정도라고 전하는 자연석 돌탑에 밧줄을 메어놓고 물때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와 풍랑이 치면서 밧줄이 끊어지고 돌탑 머리 부분이 잘리면서 돌탑머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잘린 탑 머리 부분에서 피가 솟구쳤다고 하며, 그 핏자국 흔적이 남아있다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탐고지라고 부른다. 건너편 낭도에서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탐고지



낭도 탐고지

2) 요막산 전설

적금도는 큰마을과 작은마을이 육계사주에 의해 연결된 하나같은 마을이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마을 뒷산인 요막산이 크게 무너지면서 큰마을과 작은마을이 연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다. 적금도의 세시풍속

1) 가장골과 초분

가장골은 분묘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장소로 대개 마을마다 공동묘지 성격의 가장골이 있다. 그러나 적금의 가장골은 초분을 한 곳이다. 초분은 초빈(初殯)·가빈(家殯)·초장(草葬)이라고도 한다. 입관 후 출상한 뒤 관을 땅이나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둔다. 해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그 앞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초분의 이엉은 해마다 새것으로 바뀌준다. 초분에 모신 시신은 탈육(脫肉)되고 나면 뼈만 간추려 일반 장례법과 동일하게 묘에 이장하였다.



초분 (금오도)

라. 적금도의 신앙

1) 적금마을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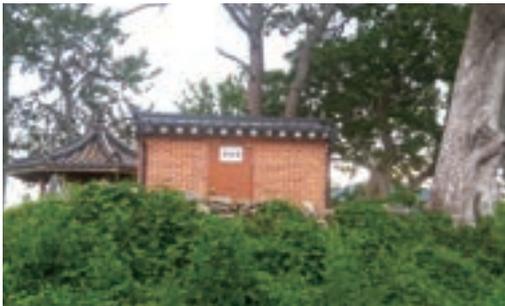
적금리 적금 동제는 매년 음력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정성으로 지내는 마을 제의이다. 이를 ‘당산제’, ‘당제’, ‘산제’ 모신다고 한다. 오래전에는 당산제를 정월 초하룻날 자정에 모셨으나,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 마을회의를 통해 정월 열나흘 날로 변경하였다. 예전에는 제를 모시고 아침이 되어서야 마을에 내려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 7시경에 올라가 제를 모시고, 밤 8시 쯤에 내려온다.



당산나무



작은당산



작은당집



당집 과 경교문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아 10여 년 전에 마을회의를 통해 변경하였다.

제를 앞두고 주민들 가운데 누가 출산하거나 초상이 나더라도 제는 그대로 모신다. 다만 출산하기 전에 다른 마을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초상이 나면 제를 모시기 전에 속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제를 모시기로 결정한 뒤에 마을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매장한다는 것이다. 당주는 큰마을 당주 1명, 작은마을 당주 1명을 뽑는다. 당주는 제 모시기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날에 대략 이야기하고 정초에 결정한다.

2007년에는 정월 초나흘날에 주민들이 리사무소에 모여서 당주를 선정하였다. 당주로 뽑히면 그날부터 근신하며 여러 가지 행동과 언행을 조심한다. 또한, 제를 앞두고 몸을 정갈히 하는데, 소변·대변을 보아도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당주는 1년간을 근신했다.

제비는 대략 70~8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제를 모신 뒤에 주민들을 위한 음식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집집마다 각출하여 마련한다. 2007년에는 1만 5천 원을 걷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마을 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마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제비를 낸다. 만약 제비를 내지 않으면 마을 이권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므로 당연히 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마을은 당제를 모신 뒤에 정월 초이튿날 도제를 모셨다고 한다. 도제는 큰너메의 ‘도제바탈’이라는 곳에서 이 마을에 사는 무당이 와서 직접 제를 모셨다. 제를 모신 뒤에는 소머리를 ‘갱물’에 묻었다고 한다. 도제는 해마다 모시다가 대략 수십년 전부터 모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당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금리는 동제를 언제부터 모시게 되었는지 주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조상 대대로 해오던 방식에 따라 모셨다고 한다. 이 마을은 한동안 제를 모시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제를 2년간 모시지 않았더니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제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길한 일이 생긴다 하여 3년째 되던 해인 1972년쯤 다시 제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제는 당집, 제당에서 모시는데 이 마을은 당집이 두 곳이다. 섬 우측에 위치한 마을이 큰 마을인데, 이 마을의 산 중턱에 당집이 위치해 있다. 이 당집을 ‘큰 당산’이라 부른다. 이곳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을 모신다고 한다. 그리고 섬 좌측에 위치한 마을이 작은마을인데, 이 마을의 산 위에 당집이 위치해 있다. 이 당집을 ‘작은 당산’이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할아버지 한 분만을 모신다.

큰마을의 당집은 한 칸 규모의 시멘트 건물로 철제문이 정문에 달려 있다. 당집의 지붕은 원래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나, 2006년에 함석으로 개량했다. 당집 좌측으로 예전에 쓰던 절구가 있고, 그 옆으로 흙무더기가 있는데, 당주가 제를 모신 뒤에 이곳에 헌식한다. 당집 주변은 소나무와 팽나무가 둘러싸고 있고, 그 일대는 숲이 제법 울창하다. 당집 문 위에는 제를 모시기 전에 금줄을 쳐놓았다. 예전부터 당집 안에 그림이 걸려 있지는 않았다.

작은마을의 당집은 큰마을 당집과 마찬가지로 한 칸 규모의 시멘트 건물로 철제문이 정문에 달려 있다. 당집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나 2006년에 함석으로 개량했다. 당집 내부 역시 큰당산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칸막이를 세워 양쪽의 공간을 구분하였다.

오른쪽 칸은 제물을 진설하는 곳으로,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왼쪽 칸은 제물을 장만하는 곳으로 한쪽 구석에 밥을 할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어 놓았다. 작은 당집 역시 큰 마을 당집과 같이 제기를 보관하였으나 리사무소에 보관해 두고 있다. 대교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은당산을 휴게소를 만들었고, 당집도 새로 만들었다.

제 모시는 시간에 앞서 이장은 당주가 제를 모시러 당집에 올라가니 문밖출입을 삼가줄 것을 미리 방송한다. 주민들은 리사무소에 모여 굿을 간단히 친다. 제의 시간이 되면 큰마을 당주와 작은마을 당주는 리사무소에 보관된 제물과 제기를 가지러 간다. 큰마을 당주는 제물을 가지고 부인과 함께 큰마을 당집으로 향하고, 작은마을 당주는 혼자서 제물을 들고 작은마을 당집으로 향한다. 각각 동시에 제를 모시러 당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당주는 당집에 도착하여 제단에 위패를 먼저 놓는데, 큰 당산의 위패는 ‘큰당산할아버지’라 적고, 작은 당산의 위패는 ‘작은당산할아버지’라 한글로 적는다. 그리고 위패 앞으로 명태포, 생쌀을 진설한다. 생쌀은 그릇에 담아서 올리는데, 큰마을 당집에서는 생쌀 두 그릇, 작은마을 당집에서 생쌀 한 그릇을 올린다. 제주는 청주를 올린다. 예전에는 메, 누룩, 백시루를 올렸는데, 당주가 당집에 올라가 직접 제물을 장만하여 진설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생쌀을 올리고 있다. 제물이 진설되면 당주는 나아가 재배한다. 재배는 세 번을 한 뒤에 이어서 위패를 소지한다. 예전부터 축문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소지 뒤에는 제물을 싸서 당집 옆에 위치한 흙무더기를 호미로 파서 제물을 넣고 큰 돌을 그 위에 덮는다. 큰마을 당집에서는 두 곳에 헌식을 하고, 작은마을 당집에서는 한 곳에 헌식한다. 그래서 큰마을 당집에는 흙무더기가 두 곳이고, 작은마을 당집에서는 흙무더기가 한 곳이다.

제를 모신 다음날인 정월 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리사무소에 모여 굿을 치기 시작한다. 예전에 정월 초하룻날 제를 모실 때는 다음날 새벽 5시경에 굿치는 사람들이 올라가 굿을 치고 당주와 함께 내려왔다고 한다. 마을에 12당산이 있어 당산마다 모두 굿을 쳤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당산, 큰 당산 너머에 당산, 큰 마을 선창 너머에 있는 갯가, 은석이집, 강구집, 작은 당산, 용왕굿, 날당산 등 여덟 군데만 굿을 치면서 마을을 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굿을 치다가 중간에 당주집에 들러 굿을 쳐준다. 굿은 그해에 따라 오후까지 치기도 하는데, 보통 점심 무렵에 끝이 난다. 당산의 명칭은 예전부터 따로 없이 누구네 집 앞이라 부른다. 이렇게 굿을 계속 치다가 작은 당산에 이르러 굿을 치고 난 후 그해 제를 모신 당주집에 들러 굿을 쳐준다.

그리고 이어서 용왕제를 모신 다음 용왕굿을 치고 마지막으로 날당산을 치면 모든 굿이 끝난다. 굿은 해에 따라서 오후까지 치기도 하는데, 보통 점심 무렵에 끝이 난다. 용왕제는 마을

선착장 뒤쪽으로 고흥군이 바로 보이는 해안가에서 모신다. 이곳을 ‘몰락기미’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이 작은 당산굿을 치고 이곳에 도착하면 바다에서 죽은 가족을 둔 주민이 제물을 한 상 가득 차려서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상이 바다를 향해 일렬로 진열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모든 주민이 상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제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 상을 차려가지고 나오는데, 2007년에는 한 상만 가지고 나왔다. 용왕굿을 친 뒤에 진설한 제물을 음복하며 날당산굿을 치러 간다.

적금마을은 당굿은 제를 모시기 전에 간단히 치고, 제를 모신 다음날인 정월 보름날에 본격적으로 친다. 보름날 주민들은 리사무소에 모여 굿을 치기 시작하여 마을 곳곳에 위치한 당산에 치러 다닌다.

적금마을은 풍물로 화정면대회에 출전한 전력이 있다. 마을의 상쇠는 신철우씨에서 권필선씨로 이어졌는데, 이들이 연로하여 곧 명맥이 끊길 것 같아 권필선씨가 신민우씨를 10여 일간 직접 가르쳤다. 그래서 신민우가 뒤를 이어 상쇠가 되어 당굿을 이어갔다고 한다. 마당밧기는 용왕굿을 치고난 뒤에 쳤다.

2013년까지도 당산제를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만큼 당산제 수호의지가 높았으나, 2013년 12월 18일 마을총회에서 당산제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이유는 젊은이가 없어 매구칠 사람이 없고, 마을 관리자들만 힘들기 때문에 폐지하였다고 한다.

2) 적금교회

적금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1966년 6월 6일 적금리 252번지에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설립되었다. 이후 1981년 4월 8일 현위치(화정면 적금뒷등길 25)에 새 예배당 건립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15일 준공하면서 이전하였다. 2020년 현재 박만규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적금교회

주소지로 본 도서별 부속섬 현황

주소	도서명	비고
낭도리 1306-14	기섬, 계섬	낭도선착장 공사로 매립됨, 현재 낭산정이 위치한 곳
낭도리 산92	목(木)도, 나무섬	섬에 나무가 많아 나무섬, 목도라 칭함
낭도리 산341	살피도	낭도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입야나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살피돌을 닮아 살피도라 부름
낭도리 산346	납대도	낭도 여산마을 앞 남서쪽 바다에 있는 납작하게 생긴 섬
낭도리 산347	대해(大蟹)도, 큰게섬	섬의 모양이 게와 같이 생겼다 하여, '게 해(蟹)'자를 써서 대해도라 칭함. 낭도방파제 공사로 매립됨
낭도리 산348	목도작은섬	목도 옆에 작은섬으로 목도에 속한 섬
낭도리 산349	문(文)도, 문섬	섬의 모양이 '글월 문(文)'자를 닮아 문도라고 칭하였다고 함
낭도리 산350	작은문도	문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365섬을 만들며 <작은문도>라고 부름
낭도리 산350-1	작은문여	문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365섬을 만들며 <작은문도>라고 부름
조발리 산128	독(犢)도, 새양치(송아지)섬	새양치(송아지)를 닮았다 하여 송아지 독(犢)'자를 써서 독도라고 부름. 간조시 둔병도와 연결됨.
조발리 410-1 외	작은섬, 앞섬	둔병마을 남쪽에 있는 섬으로 작은섬, 앞섬이라 함. 다리로 연결되어 있음.
조발리 산69	미(尾)섬, 목섬	간조시 둔병도와 연결됨. 주민들은 평상시 본섬과 목이 생겨 목섬이라고 함.
조발리 산1	토(兔)도	육지서 바라보는 섬의 모양이 토끼를 닮아 <토끼섬>이라 칭함
조발리 산68	치(鷄)도, 취도	우리말 수리섬을 한자로 '수리 치(鷄)'자를 써서 치도라 함. 취도라고 부르기도 함

주소	도서명	비고
조발리 산70	홍도, 홍창도, 할미섬	섬에 나무가 없어 붉은 빛을 띠다 하여 홍도라 칭함. 마을사람들은 할미섬이라고도 부르는데 할머니가 깻갯을 가서 사고로 죽었다고 함
조발리 산137	삼여	조발도와 화양면 사이의 3개 여 중에서 북쪽에 위치
조발리 산138	삼여	조발도와 화양면 사이의 3개 여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2개의 여
적금리 산1	만월도	섬이 달 모양처럼 둥글다 하여 만월도라 칭함.
적금리 산2	상과(上瓜)도	섬 모양이 오이를 닮아 외섬이라 함. 위쪽에 있어서 상과도라 부름
적금리 산3	하과(下瓜)도	섬 모양이 오이를 닮아 외섬이라 함. 아래에 있어서 하과도라 부름
적금리 산4	오(梧)도, 머구섬, 머그섬	적금리 마을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머구(오동나무 열매)를 닮아 머구섬이라 함. ‘벽오동나무 오(梧)’자를 써서 오도라고도 함. 고지도에는 오동도로 표기됨
적금리 산6	등대여, 납데기	하과도 남방등표가 있어 등대여라 부름. 주민들은 납데기라고 함
적금리 산5	등대섬	오도 남방등표가 있어 등대섬이라 부름
적금리 산7	머금섬	낭도 고막포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섬
적금리 산8	응(鷹)도, 매섬, 사자섬	매섬이라고 하며, 섬의 형상이 사자를 닮아 사자섬이라고도 함
적금리 산9	소응도, 작은매섬	매섬 동남쪽의 작은 섬
적금리 산10	오진여	외섬 동쪽의 작은 여로 해산물이 많아 ‘오지다’ 하여 오진여라고 함
적금리 산11	소당(小堂)도, 소맹이	섬이 작아 소맹이라고 함. 소당도는 소맹이의 한자 표현이며, 간조시 육지와 연결되는 작은 섬